

2023 문화 화제

<2> 개관 10년 맞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광주 양림동에 자리한 레지던시 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창작소와 함께 문을 연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는 레지던시 작가 결과 보고전 등 120여회 전시회가 열렸다. (아트주 제공)

선교사 사택에 '문화예술' 스미다

양림동을 찾을 때면 '시간의 문'을 열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1904년부터 살기 시작한 선교사들의 흔적과 고택 등이 남아 있는 양림동은 '근대 문화의 보물창고'다.

수령 400년이 넘는 호랑가시나무(광주시 기념물 17호)가 자리하고 있어 '호랑가시나무 언덕'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문화 예술'이 스미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문화예술기업 아트주가 운영하는 레지던시 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이하 창작소)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아트주는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을 활용한 창작소를 비롯해 게스트 하우스,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등 전시장을 잇따라 개관하면서 문화 향기를 전하고 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과 자연을 품은 갤러리는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레지던시, 지역·해외 작가 교류 거점 아트폴리곤·글라스폴리곤 등 갤러리 15일까지 佛 페리스 전 등 10주년 행사

지역 작가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특히 하고 있는 창작소는 지난 2014년 1월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머물고 간 작가는 110명에 달한다. 회화·사진·미디어아트·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미술인들을 비롯해 소설가, 시인, 음악가, 영화감독 등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녀갔다.

특히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온 점이 눈길을 끈다. 첫 해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작가가 다녀갔고, 이후 개별 작가 방문과 더불어 각국의 레지던시와 협업이 이뤄졌다. 올해는 스페인의 아나 허네즈, 이탈리아의 유디스 노인호이저리, 프랑스 엘비에 등 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윤세영·조은솔·설박 등 지역 작가들의 해외 파견도 시작했다. 올해는 공모 과정을 거쳐 이탈리아 론제기와 프랑스 마르세유 잔바레에 작가를 파견한다.

2014년 선교사 사택을 수리해 게스트하우스를 연 데 이어 2016년부터는 레지던시 작가들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버려진 차고를 고쳐 만들었다. 적벽돌 건물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유리 천정 등을 만들어 공간을 꾸몄다. 바로 앞에 문을 연 글라스폴리곤은 경비동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아트주 정현기 대표는 레지던시 작가로 머물렀던 중국 작가 소와 함께 공공미술 개념을 담아 공간을 조성했고 선교사 사택에서 폐자재 등을 가져와 상점으로 삼았다. 역사의 흔적들이 사라진 대신, 그 기억을 남겨 방문하는 이들에게 공감을 전하고 싶어했다.

글라스폴리곤 지하에는 또 다른 전시공간 베이스 폴리곤이 자리잡고 있다. 갤러리에서는 레지던시 작가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120여회 전시회가 열렸고 지난 2021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으로 사용되는기도 했다.

예술, 도시재생,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아트주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인 호남신학대와 접촉,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아트주는 10여년간 공간 이곳 저곳에 수많은 꽃을 심는 등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최근에는 수지 주연의 드라마 '이두나!' 촬영이 진행되는 등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이 로케이션 장소로 탐내는 공간이 됐다.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작가 다니엘 보니엘 페리스 개인전은 선혜영 해외협력 큐레이터와 공동기획한 전시로 겨울날 따뜻함을 전한다. 'The Four Seasons Story 사계의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에서는 마르세유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작가가 프랑스의 청정 자연과 동식물, 사람들의 일상을 동화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4월부터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게'를 주제로 열리는 2023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으로 활용되며 양림동에 작업실을 둔 한부철 작가 개인전, 청년작가 초대전, 성남 큐브미술관, 완주 연석산미술관 등과 연계한 전시도 열 예정이다. 또 연말에는 10년간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를 구상중이다.

첫해 레지던시 작가를 모집할 때는 사람을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5~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 대표는 광주문화재단 지원과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도움을 받았고 광주비엔날레의 위상도 큰 역할을 했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민간에서 레지던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은 이들이 도와주셨죠. 창작소와 갤러리를 꾸미며 교류 거점, 매개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룬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작가들을 해외에 내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관 대 기관으로 형성할 수 보람을 느낍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니엘 보니엘 페리스 작 '세계적 나무가 있는 마을'



일본 'HiroYuki STUDIO' 초대전

2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고양이인듯, 고양이아닌듯.'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고양이 캐릭터를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호심미술관(관장 최준호)은 27일까지 일본 'HiroYuki(히로유키) STUDIO'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사진)

'HYBRID(혼중·混種)'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고양이 캐릭터 작품 15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속 고양이들은 기존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 속에 인간의 모습이 가미된 '혼종'이다. 헬멧을 쓰고 스케이트 보드를 든

채 무언가 불만을 터트리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캐릭터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잘 포착한 얼굴 표정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은 캐릭터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다.

서울과 도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아티스트 'HiroYuki STUDIO'는 개별 전시와 함께 한국 작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도시 고양이 보호 활동인 '도시고양이 프로젝트(Urban Cat Project)'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의 참여작가 안준영, 김덕희, 강원제, 유지원(왼쪽부터).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3' 작가 선정

광주 유지원·전북 안준영·대구 강원제·부산 김덕희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재일 교포 하정웅 선생으로부터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603점을 기증받았다. 2001년부터는 그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고 유망한 청년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3' 참여작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광주의 유지원, 전북의 안준영, 대구의 강원제, 부산의 김덕희 등 모두 4명이다. 참여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추천한 12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회의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선정작가는 오는 3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를 위해 지난 12월 작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시 공간·방향 및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지원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란 주제 아래 배제되거나 잊혀진 개념, 공간,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들을 소재로 조각, 설치, 영상 등 복합 매체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다.

강원제 작가는 작업의 결과물보다는 '그리기'라는 행위의 과정과 시간, 여기서 새로이 생겨나는 부산물에 눈길을 던지며 김덕희 작가는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열'이라는 매개를 통해 탐구한다. 안준영 작가는 불안과 신경증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 편집적인 드로잉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남구,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13일까지 접수

광주시 남구가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문화예술단체 30여곳에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 사업과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이다.

공고일 기준 남구에 위치한 문화예술본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교육프로 '깍지 손 e 국악' 장단편 12일~2월 9일 유튜브 공개



전남도립국악단이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깍지 손 e 국악' 장단 편(사진)을 공개한다.

전남도 교육청과 협력제작한 해당 영상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다. 지난해 공개한 단소편에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 대표 장단들을 살린다.

강사로는 운암현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 상인단원과 박상준 단원이 함께하며 중모리부터 휘모리에 이르는 5개의 기초 장단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강의가 수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장단보' 등이 실린 교육자료도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문의 061-980-9966. /김미은 기자 kdi@

알록달록 아름다운 '조각보' 마음을 위로하다

홍영숙 두 번째 시집 '조각보를 깎다' 펴내

"상처 나고 해진 곳 덧대고 덧대어서 덧덧수록 아름다워지는 조각보 같은 꽃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지러지다 차오르기를 몇 번, 시의 추억은 속살 같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움으로 오는 시집은 아릿한 유년의 기억까지 불들더니 푸릇한 움을 틔우며 오히려 나를 닮아 주었습니다."

형질을 대어 만든 보자기를 조각보라 일컫는다. 남은 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는 알록달록한 색감이 이색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학적 의미에서 조각보는 상처를 덧대는 사물로 이미지화된다. 것처럼 조각보는 용도를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매개체로 환기된다.

서문평연구소 연구소 시낭송 회장인 홍영숙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조각보를 깎다' (시와사람)를 펴냈다.

모두 90여 편의 작품들은 그동안 풀어내지 못한 '시의 보따리'라 할 수 있다.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감성이 잘 녹아있는 작품들은 옛 시절의 풍경을 선사한다. 각각의 작품에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대상에 대한 관조의 거리가 느껴진다.

"혹심 하나 품고 사는 세상/ 짜디싼 눈물이야 슬픈 환상 같은 거// 시를 짓다가 연필 심이 부러지면/ 더 깎을 수도 없는 연필/ 지우개가 다 닳고 침이 마르다/

//(중략)// 내 지나온 길처럼/ 지렁이처럼 써 내려간 일기에는/ 졸졸 따라다니던 풍당 글씨/ 지운다고 달라질 일 없는 동심 // 남아있는 흠집을 빛나게 다듬어/ 오늘은 시함으로써 피워낸 다"

위 시 '몽당연필'은 시를 향한 열망,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혹심 하나 품고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그동안 문학에 대한 열정을 시인은 남모르게 견지해왔다.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가치나 꿈들이 몽당 연필에 투영돼 있다.

이지업 시인은 추천사에서 "홍영숙 시인은 '모반 위에 오곡밭 덮어놓은 듯한 상처말'을 하듯 아름다운 시를 쓴다"고 평한다.

한편 홍 시인은 2022년 '시와사람' 시로 등단했으며 공무원연금문학상 수상과 '기억하라 오월' 콘텐츠경연대회 최우수상(사시극)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